

한·러 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獨島)

박종효*

1. 머리말
2. 올리부차 호의 독도 발견과 대한제국 동해안 지도제작 동기와 의의(意義)
3. 브리네르의 울릉도 별목이권 도벌사건과 고종 칙령 41호
4. 독도 앞 러·일 해전도(海戰圖)
5. 러·일 평화조약(1905) 체결 이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독도 인식
6. 맺는 말

1. 머리말

러시아는 일찍이 1852년 청·일(淸·日)과 수교(修交) 교섭을 위한 특사로 해군(海軍) 제독(提督) 뿌썬틴(Путятин Ефим)¹⁾을 <팔라다>(Паллада)²⁾호로 극동에 파견하였다. 그 때 러시아 외무부는

* 박종효, 역사학 박사, 저자; 격변기의 한·러관계사, 2015, 선인출판사

1)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А.М.Прохоров,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21,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75. с.242.

2)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шкуны восток, корвета оливуца, и транспорта князь Меншков, министерст-

대한제국을 청국(淸國)과 특수 관계에 있다고 믿어 수교교섭을 하라는 훈령을 하지 않았으나 뿌짜틴은 앞으로 연해주, 즉 우수리 지방이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리라고 예상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수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³⁾

그래서 뿌짜틴은 거문도와 함경도에 기항하여 민간인과 지방관청을 통해 특명전권대사의 이름으로 수교요청서를 조선 중앙정부에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쇄국정책(鎖國政策)으로 회담을 하지 않았었다.

이 무렵에 <빨라다> 호의 지원선 올리부차(Оливуца)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에 대한 지형과 위치 등을 기록한 항해일지를 1854년에 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한 해군지(Морский журнал: 주: Морский는 해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해군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는 해군이 맞다.)에 처음 발표하면서 독도는 일본보다는 조선에 근접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1855년에 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된 해군전집(Морской сборник)에서는 대한제국 동해안을 조사 측량할 때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를 불가분의 도서로 보고 두 섬을 함께 조사하였다고 하였다.⁵⁾ 그 후부터는 해군부에서 발행한 1856, 1857, 1858, 1859년의 해군전집에서도 울릉도 다음에 항상 독도에 대한

во ВМФ, СПб. 1856г. с. 132.(돛 세 개와 증기동력을 갖춘 고속군함).

3) И.А. Гончаро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 И писем в 20 томах, Том3, Москва 1957, с. 132. АВПРИ, Фонд, СПб, Главных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1-9, 18521856гг. Дело 17, Часть 11, Листы 256~257,

4) Обзор заграничных плаваний судов русского военного флота том 1. (с 1850 по 1868), Министерство ВМФ, СПб. 1871г. с.12.(올리부차는 지중해 시칠리아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인데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가 그 곳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 기념으로 메네라이(Менелай)호를 올리부차 호로 개명하였다. 메네라이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남신으로 흑해 함대 소속으로 있을 때의 호칭이었다.

5)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 19, № 1 Январь, СПб, 1855, с.34пб

조사기록을 기재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독도와 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독도를 사실상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 빨라다 호가 1854년에 조선동해안을 측량하면서 부산, 울산, 원산, 울릉도, 독도 등의 지형(地形), 수심(水深) 그리고 조류(潮流) 등에 관해 조사해 러시아 해군부에서 전지(全紙)에 1857년과 1858년에 각각 조선동해안(Восточный берег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이란 명칭으로 지도를 발행하고, 그 지도안에 독도도 위치시켰다. 이 지도는 국내외(國內外)를 통틀어 현대적인 측량술로 제작된 최초의 조선동해안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가 1860년에는 두만강 건너 청국의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있던 우수리(Уссури=烏蘇里)지방을 청국으로부터 할양(割讓)받아 조선과 이웃나라가 되면서 1884년에는 조·러양국이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수교하였다. 당시 청·일은 조선에서 서로 영향력 쟁탈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아산만에서 청·일전쟁(1894~1895)을 일으켜 청국으로부터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의 3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이 청국에서 빼앗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고, 조선내정에는 더욱 과도한 간섭을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내밀히 일본의 간섭을 막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에 보호교섭을 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불러들이려는 배후 조종자로 민왕후(閔王后)를 시해(弑害)하고 친일내각을 구성시켰다. 그러므로 고종(高宗)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주: 俄館播遷)하였다.

바로 그 시기에 1896년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브리네르(Бринер Юрий Ианович)⁶⁾가 조선정부로부터 압록강(鴨綠江), 두만강

6) Примо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бъединенный музей имени В.К. Арсеньева, Владивосток, Фаркон, 1996г. с.59-63. (브리네르는 스위스 출신으로 14살에 일본에 와 부유한 영국인에 의해 교육을 받고 상해(上海)에서

(豆滿江), 울릉도(鬱陵島) 벌목(伐木)이권을 획득하였다. 일본은 이를 시기하여 울릉도의 아름답디 희귀목(稀貴木)을 도벌(盜伐)해 일본으로 운송해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대한제국정부에 도벌방지를 요청하였으나 속수무책으로 있어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관 슈테인(Штейн) 서기관을 1899년 6월에 경북도(慶北道) 산림관 조성협(주: 원문에는 조씨 성만 나와있다)과 함께 울릉도에 출장 보냈다. 슈테인은 일본인 140명이 도벌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⁷⁾

슈테인의 보고서로 러시아 외무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 소속 까르닐로프 제독(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호를 1899년 10월 말일경에 울릉도로 출동해 일본인의 도벌을 방지하라고 지시하였다.⁸⁾ 까르닐로프 제독 호는 도벌을 목격하고도 대한제국 영토라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서울주재 러시아 공사관을 통해 대한제국정부에 도벌방지책을 세워 달라고 다시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런 러시아의 요청이 있던 후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勅令)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독도(獨島=石島), 죽도(竹島) 등을 울릉도(울도)에 포함하고 관리를 강화시켰던 것이다.⁹⁾

한편 일본은 러시아가 청국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1898년 조차(租借)한 이후부터는 대한제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와 만주개방문제와 압록강 벌목이권 문제로 또다시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1904년 2월 8일 인천에서 러시아 함대를 어뢰(魚雷)로

견적물 장사와 선박회사 지사를 운영하다가 1880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다. 왕년의 허리우드의 명배우 울부리너가 그의 손자다).

7) АВПРИ, Фонд 150,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 17.

8) АВПРИ, Фонд 150, 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 17~60.

9) 대한제국관보, 1900년 10월 27일자.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켜 2월 9일에는 서울을 점령해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던 전 러시아 외교관과 러시아인을 추방시켰다.¹⁰⁾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여순항을 1905년 1월 2일 함락하였다. 러시아는 발틱해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여순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제2함대와 3전투함대(주: 제3전투함대는 주로 철갑 순양함으로 구성되었다)를 구성해 보냈으나 여순항이 함락되어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가 러시아 함대 항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그 항로를 감시하고 방해하기 위해 1905년 2월 22일에 서둘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1905년 5월 27일 대마도 해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제2, 3함대(주: 일본은 발틱 함대라고 호칭)를 일본은 전 함대는 물론 상선까지 동원하여 포위해 러시아 함대를 거의 전멸시키고 독도 앞 해상에서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다.

그런데 그 해전에서 가장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던 러시아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꼬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호가 1905년 포츠머스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러시아 해군부에 제출한 보고서와 해전도(海戰圖)를 보면 놀랍게도 울릉도를 중심으로 독도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대한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어 러·일전(1904~1905) 당시 러시아 해군에서도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¹⁾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거쳐 소련 방 시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연합국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조약(주: 소련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을 체결한 다음인 1972년도에 발행한 소련정부의 동해(일본 해) 수로지(水路誌)에는 대한민국 표기대로 독도를 러시아어로 독도(Токто)라고 하고 다께시마

10)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 Корея(1904~1905),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1997, с.163.

11) ГАРФ, Фонд. 601, Опись. 1, Дело. 513, Лист № 33.

라는 호칭은 없었다. 그리고 현 러시아 연방정부 국방부에서 2001년에 발행한 한반도 수로지(水路誌)에서는 마침내 독도를 확실하게 한국영토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최초 독도를 1854년 제정 러시아 군함 올리부차 호가 발견한 이후부터 소련시대를 거쳐 러시아 연방에 이르기까지 한·러 관계사에 나타난 독도에 관련된 러시아 측의 여러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문서, 지도, 수로지 그리고 정치지도를 참고해 러시아와 독도관계를 밝혀보았다.

2. 올리부차 호의 독도 발견과 대한제국 동해안 지도 제작 동기와 의의(意義)

러시아가 일본 및 중국과 수교를하기 위해 뿌쨌틴(Пулятин E. B.) 제독(提督)을 특사로 1852년에 “빨라다(Паллада)”호로 파견하게 되는 동기는 1852년 3월 4일(주: 러시아 舊曆 1852.2.20) 동부 시베리아 총독(總督) 무라비요프(Н.Н.Муравьев)가 “미국(美國) 정부는 2개 팀의 무장 탐험대를 아시아 연안에서 베링해협(Bering strait)까지 조사하고 일본(日本)을 개항시키기 위해 파견한다”고 해군부에 보낸 정보에서 발단하였다.

사실 미국(美國)은 당시 캄차트까(Камчатка)와 연해주 여러 지방에서 수백 척의 포경선(捕鯨船)이 작업을 하고 있어 포경선의 수리와 식료품 조달을 위해 일본의 개항(開港)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1837년과 1846년 두 차례 개항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다시 페리(Mathew G. Perry) 제독으로 하여금 10척의 전함(戰艦)과 2,000여 명의 병사를 보내 무력

개방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1세(Николай 1)는 페리에 의해 일본이 개방되어 미국과 서구열강이 먼저 일본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터키(Turkey)문제로 흑해(黑海)에서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영·불(英·佛)의 함대가 극동 러시아를 겨냥한 전초 기지로 일본 항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다.¹³⁾

러시아도 그동안 일본과 수차례 통상문제와 국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본도 폐쇄정책(閉鎖政策)을 실시하고 있어 실패하였는데,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미국에 뒤지지 않으려고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청·일 양국의 개항과 수교교섭을 위해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이며 세계 일주 여행에 경험이 있는 해군 중장 뿌짜틴을 1852년 5월 19일(러시아 舊曆 5월 7일) 극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

뿌짜틴은 대외교섭 임무에 갖추어야 할 유연하고 단호한 성품을 소유하고, 또 아직 조사단계에 있는 극동지역의 해로(海路=水路)와 지도를 작성하는 데도 세계 일주를 한 경험이 있어 적임자로 보았던 것이다.

뿌짜틴의 부관은 해군대위(大尉) 뽀시예트(К.Н. Посьет)였으며 비서로는 대외 통상국 계장이며 후에 유명한 소설가가 된 곤차로프(И.А. Гончаров)였다. 그리고 통역관으로는 외무부 고쉬게비치(О. А. Гошкевич)와 또 북경(北京)의 러시아 정교회(正教會) 선교(宣敎)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청국어(淸國語)에 능통한 뽀제르부르

12) А. Л. Нарочницкий,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осква, 1956г. с.27.

13) Файнберг Э.Я.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 гг. М.: Моск. гос. ин-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1960. 314 с. с.142~144.

14) Э.Я. Файн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гг, Москва. 1960, с.142~144.

그의 알렉산드르 뵈스끼 수도원(修道院) 승원관장(僧院管長) 아바꿈(Аввакум)이 선정되었다.¹⁵⁾

먼저 “빨라다(Паллада)”호는 “보스토끄(Восток)¹⁶⁾호와 함께 출발하여 러·미회사 소속(Рус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¹⁷⁾ 수송선(輸送船) 멘쉬코프 공후(Князь Меншиков)호와 1851년에 흑해 함대 소속에서 극동에 파견되어 러시아 포경선(捕鯨船)을 보호하며 극동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포함(砲艦) 올리부차(Оливуца)호를 현지에서 합류시키기로 하여 3척이 빨라다 호를 호위하도록 하였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에서 뿌짜틴에게 준 훈령을 보면;

- 1) 미·일(美·日)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조약조건을 보고,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보장받을 것.
- 2) 러시아는 청국과 까흐타(Кяхта)¹⁸⁾에서 육상무역권을 보유하면서 영·불·미에 개항(開港)한 5개 항구에서도 동등한 통상권을 획득할 것 등이었다.¹⁹⁾ 그러나 조선과는 청국의 특수 보호국임을 고려해 수교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⁰⁾

뿌짜틴은 1852년 10월 19일(러시아 구역 10월 7일) 뻬쩨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²¹⁾의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 해군항(海軍港)을

15) Б.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осква, 2004, с.58.

16) Восток호는 뿌짜틴이 극동출발에 앞서 영국에서 구입한 증기선으로 쾌속정이다.

17) Рус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러·미 회사는 러시아가 1802년에 극동에 식민지 개척과 세금징수 및 포경사업을 위해 반관(半官) 반민회사로 설립하였다.)

18) Кяхта(부라티야 공화국과 몽골의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로 1727년에 러·청 조약으로 러·청간에 유일하게 육로무역을 허용한 지방이다).

19) А.Л. Нарочницкий,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Москва, 1956, с.134.

20) И.А. Гончаро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 И писем в 20 томах, Том3, М. 1957, с.132

21) 우리나라 외국어 표기법은 영어를 중심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문자에 적용하면 엉뚱한 음이 된다.

뻬쩨르부르크를 표기법을 따르면 페테스부르크라고 써야 한다. 그러므

떠나²²⁾ 1853년 6월에 청국)에 도착해 이미 영·불·미에 개방한 5개 항(港)을 러시아에도 개방시켜 줄 것을 교섭하였으나 청국은 러시아에 까흐타(Кяхта)에서 육로통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해(上海) 등 5개 항의 개항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뿌짜틴은 바로 조선의 남해안(南海岸)을 돌아 1853년 8월 22일에 일본 나가사끼(長崎)에 도착하였다.²³⁾ 일본도 쇄국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3~4년 후에나 통상과 꾸릴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등을 포함한 국경문제를 해결하자고 대답해 통상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뿌짜틴은 통상교섭을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남해를 거쳐 청·일을 번갈아 왕래하면서 통상 기회를 엿보고 열강의 통상교섭 진척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러시아와 터키(Turkey)가 흑해(黑海)연안에서 패권 다툼으로 터키가 1853년 10월 16일 러시아에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였다. 그러나 터키가 패전을 거듭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남진정책(南進政策)에 불안을 느껴 터키에 가담하여 크림전쟁(Crimean War, 1854~1856)이 발생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터키를 지원하기 위해 1854년 1월 4일 흑해에 출현해 러시아도 2월 21일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²⁴⁾ 그런 상황에서 뿌짜틴은 크림전쟁 상태를 알아보고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홍콩과 마카오에 극동 해군사령부를 두고 있어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1854년 2월 5일 나가사끼 항을 출항해 “빨라다”호를 포함한

로 가급적 러시아어 원음을 따라 썼다.

22)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отчет оплавания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шкуны восток, корвета оливуца, и транспорта князь Меш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ВМФ, СПб. 1856г. с.133.

23)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отчет оплавания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шкуны восток, корвета оливуца, и транспорта князь Меш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ВМФ, СПб. 1856г. с.150.

24) Рахматуллин М.А., Война России в Крымской кампани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72, No.8, с.104.

호위선 3척이 모두 스페인 지배하의 중립국이었던 필리핀(Philippine) 마닐라로 떠났다. 하지만 스페인 필리핀 총독 파비아(Pavia)는 영·불 편을 들어 빨라다 호에 기항을 거부하고 출항하라고 하였다.²⁵⁾ 때문에 뿌썬은 3월에 마닐나(Manila)를 출항해 영·불 연합함대와 직접 적인 충돌을 피해 블라디보스토크의 해협(海峽)으로 항로를 잡고 3척의 지원선에 각각 다른 임무를 지시하고 집결지로 청·일을 왕래하는데 편리한 조선 남해의 거문도(巨文島)로 정하였던 것이다.²⁶⁾

멘쉬코프 호는 상해(上海)에 들러 그곳 우체국에서 “빨라다” 호에 온 편지를 수거한 후 거문도(Hamilton)에서 “빨라다” 호와 합류하고, “보스토끄” 호는 유구(琉球列島)에 있는 미국 함정의 저탄장(貯炭場)에 들러 당시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미국의 페리(Matthew G. Perry) 제독의 통상교섭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거문도로 오라고 했다.²⁷⁾

그러나 올리부차 호는 타타르(Татар) 해안으로 직행하여 아무르(Амур=흑룡강) 탐험대장과 연락을 취하고 영(英)·불(佛) 연합 함대로부터 감차트까의 방위를 위해 페트라파블롭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로 향하라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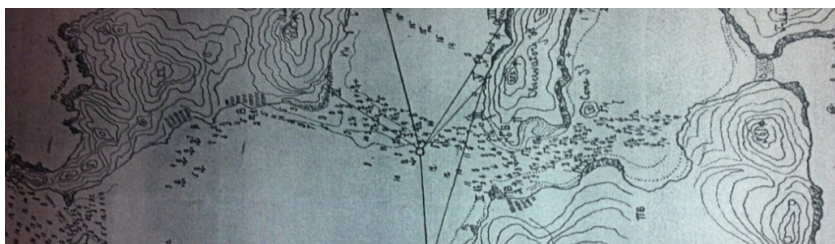
이렇게 러시아 함대의 집결지로 거문도(巨文島)를 선택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홍콩과 마카오에 기지를 두고 있는 이들 동양함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일본과 청국을 왕래하는 항로인 대한해협(大韓海峽)의 관문(關門)에 위치해 있어 식수와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1854년 4월 2일 거문도 해안에 빨라다 호를

25) Рахматуллин М.А., Война России в Крымской кампани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72, No.8, с.105.

26)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Январь, СПб, 1856г. с.160.

27) ВМФ, обзор заграничных плаваний судов русского военного флота(1850~1868), СПб, 1871, с.49.

위시한 “멘쉬코프” 호와 “보스토끄” 호가 집결하여 7일까지 2일과 4일 두 번에 걸쳐 승무원이 상륙하여 거문도를 측량하였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로 떠나 부활절(復活節)을 보낸 후 빨라다 호는 동부 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의 요청으로 4월 20일~5월 11일까지 21일간 조선 동해안을 부산에서 두만강 하구(河口)까지 실측(實測)하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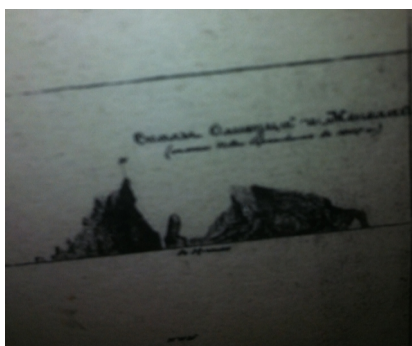
★ 1854년에 그린 최초의 러시아 거문도 지도²⁹⁾

한편 “올리부차” 호는 뿌짜틴의 지시에 따라 타타르 해협으로 향하던 중에 1854년 4월 18일 유럽국가들의 지도에 없는 독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서해안(西海岸)보다 독도가 대한제국 동해안(東海岸)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올리부차” 호의 함장(艦長) 해군대위(海軍大尉) 나지모프(Назимов)가 항해 일지에 발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남겨 러시아에서는 독도가 대한제국영토라는 관념(觀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8)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Январь, СПб, 1856г. с.161.

29) РГАДВ, Фонд. 192, Опись. 3, Дело 440.

빨라다 호는 그 당시 가장 좋은 지도로 알려진 아담 크루젠슈테른(Иван.Ф.Крузенштерн) 지도와 영국해군에서 사용하는 조선반도(The peninsula of Korea) 지도를 비교해가며 오류를 수정하고 특히 연안의 경도의 오차를 정정하고 있었다. 그 때 올리부차 호로부터 독도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은 뿌짜틴 제독은 빨라다 호의 조타실에 근무하던 세르게예프(Сергеев) 중령을 불러 독도 현지에 다시 파견해 정오(正午) 12시에 독도가 가장 잘 보이는 시간에 제도하라고 지시하였다. 세르게예프는 독도의 높이와 형태 및 면적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는데 이 지도는 단독으로 1855년 1월호 러시아 해군지에 소개되었다.



★ 1855년 러시아 해군지에 발표된 독도³²⁾

★ 좌(左)측 지도를 일본이 1876년에 복사한 독도³³⁾

러시아는 독도를 “올리부차” 호가 발견하기에 앞서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Liancourt)” 호가 1849년 발견하고 바위섬(roks) “리앙쿠르”라고 작명하였다는 사실을 그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32) морской журнал, 1855, Номер 1, СПб.

33) 1875년에 일본해군에서 복사한 지도 삿세르부르크 아카데미 도서관 지도과 소장, 모스크바 레닌 도서관 소장, РГАМФ, РГВИА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출판물에서 1854년 러시아 “빨라다” 호(주: 올리부차 호가 발견하였으나 “빨라다” 호가 사령선이므로 빨라다 호가 발견하였다고도 한다)가 발견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동도(東島)를 “올리부차”라고 호칭하고 서도(西島)를 “메넬라이”라고 불러 “올리부차” 호의 발견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1856년 재차 조사한 독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올리부차” 호가 처음 향해 일지에 기록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1차 발견시(1854년) 자료:

위도: 북위 37도 13분

경도: 동경 131도 55분

2차 조사시(1856년) 자료:

위도: 북위 37도 17분 9초,

경도: 동경 131도 54분 23초

고도: 해발 410피트

길이: 1609미터. 수심: 깊다.

다년 생 식물은 없으나 풀이 자라고 있으며 상봉은 물세의 배설물로 하얗고 바위로 형성되어 있다. 섬에 접근은 안개 낀 날이나 밤에는 위험하다.

러시아는 재차 조사할 때 영국군함 호넷 (Hornet)의 다음과 같은 조사기록도 함께 수록하였다.

영국군함 호넷이 조사한 자료:

위도: 북위 37도 1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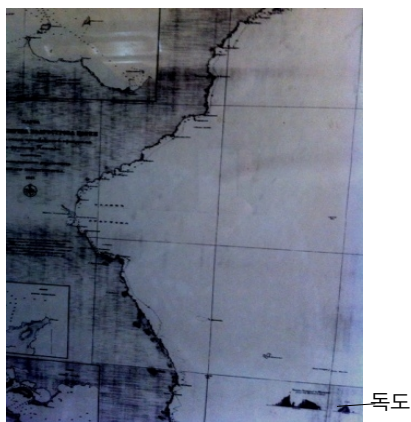
경도: 동경 131도 55분

고도: 해발 410피트³⁴⁾

34)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21 № 4, СПб, 1856г. с.30~31, Лоция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восточного океана, часть 1, СПб, 1901, с.31.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미수교상태였으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일본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도를 관찰하고 측량해 제도(製圖)하였던 것이다.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일본에서 그 때까지 목적(目測)으로 제작한 지도를 참고하지 않았으나 측량술이 발달한 영·불·러 등에서 제작한 지도가 세계 지리학계를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곧 표준적인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태평양 진출항로를 개척하면서 항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를 여러 차례 조사하였으나 항상 조선 영토로 잘 알려진 울릉도 다음에 지형과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독도 발견 당시 지리적으로 대한제국에 가깝게 위치한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조선동해안지도”라는 명칭으로 전지(全紙)에 제도해 처음 1857년에 러시아 해군부가 발행하였던 것이다.



★ 1857 러시아가 발행한 조선 동해안지도와 독도



★ 이(좌) 지도를 일본에서 1876년에 복사한 지도35)

35) 러시아 해군부에서 1857년도 발행한 지도를 일본이 1876년도에 복사한 지도.

일본이 이 대한제국동해안과 독도가 그려진 러시아 지도를 복사하게 된 동기는 1875년 러·일 뻘째르부르그의 조약에서 러시아에 쿠릴열도와 교환으로 남 사할린을 양보한 후 극동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조선의 동해안과 또 동해상의 중심부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주: 울릉도는 수심과 조류 등은 물론 지도를 별도로 그려 이 지도안에 넣었다)의 전략적인 위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프랑스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하고도 지도를 바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에 그린 러시아의 조선동해안과 독도지도는 서양에서 제작한 최초의 지도가 되었다. 게다가 러시아도 동해안 연안 국가가 되면서 동해가 주로 조선, 일본 그리고 러시아 3국이 활동하는 해상무대였으므로 러시아 측의 조선동해안 지도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한 일본 서해안 지도에도 독도를 위치시키고 있어 이 지도 하나만으로는 독도에 대한 러시아 측의 명백한 답이 담겨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브리네르의 울릉도 벌목이권 도벌사건과 고종 칙령 41호

두만강, 울릉도, 압록강 벌목이권(伐木利權)은 스위스 태생으로 조선에서 쌀을 수입해 블라디보스토크에 공급하면서 1868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민(移民)간 상인(商人) 브리네르(Ю.И. Бринер)가 1896년 9월 10일 1만 5천 루블의 담보금을 조선정부에 예치하고 20년간 두만강, 울릉도 그리고 압록강 벌목이권을 취득

했다. 그는 전에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청국과 거래하는 선박회사에 근무했던 관계로 태평양지역의 상업현황을 자기 손금 보듯 알고 있어 대한제국의 울창한 원시림에 욕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침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는 기회를 활용해 대리공사 뱌베르를 통해 벌목 이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96년 8월 28일 브리네르는 서울에서 외부대신(外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 대신 조병식(趙秉式)과 협정을 체결하고 1897년 초에 두만강 좌안(左岸)부터 벌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벌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수 없어서 이 벌목이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남우수리 지방 국경행정관 마튜닌(Н.Г.Матюнин)³⁶⁾이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브리네르의 벌목이권(利權)은 정치 및 군사 목적과 연결해 대규모 사업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뻬제르부르그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 그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벌목기간 동안 한·만국경(韓滿國境)에서 독점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⁷⁾

그는 만약 대한제국산림회사의 이권을 브리네르가 다른 외국인이나 일본인에게 넘길 경우 러시아는 극동에서 국방과 상업에 큰 피해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런 마튜닌의 설득에 공감한 인사들에 의해 브리네르의 벌목이권은 몇 사람의 특권층과 러시아 황실청(皇室廳)이 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니콜라이Ⅱ세(НиколайⅡ)도 만주에 야욕을 갖고 있어 외국의 개입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결국 니콜라이Ⅱ세는 한·만국경의 이권이 다른 외국인의 손에 양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하고 1898년 5월

36) 마튜닌은 전에 우수리 국경행정관을 역임하면서 북한지방 영사를 겸임하여 대한제국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서울대리공사로 1898년 3월 27일 부임해, 동년 12월 31일 독일 메르본 영사로 전임).

37) 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493,дело. 53, лист.81.

18일 황실청에서 7만 루블을 지출하고 베조브라조프(А.М.Безобразов)³⁸⁾를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벌목이권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³⁹⁾

베조부라조프는 대한제국산림회사를 기반으로 러시아가 대한제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타국에 이권을 양보하지 않고 경제확장을 해야 한다는 야심 찬 논리로 대한제국산림회사의 상호도 변경해 동아시아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가 대외활동을 하는 민간회사로 러시아 국가이익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베조부라조프의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만주문제 등으로 야기된 극동의 정세를 수세(守勢)에서 방어(防禦)로 전환을 위해 불가피 몇 가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1898년 5월 12일(러시아 구역 4월 30일)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대공(大公)과 바론쵸프-다쉬코프(И. И. Воронцов-Дашков)백작이 니콜라이 II 세에게 상주(上奏)하였다. 이 상주서에 니콜라이 II 세는 공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 1) 브리네르의 산림이권의 인수가 바람직하다.
- 2) 대한제국의 산림실태는 물론 그 북부지방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연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제국의 북부지역의 지배를 시도한다.
- 3) 대한제국정부와의 관계를 강화시킨 다음 러시아 내각재산 관리국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와 특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4) 만일 조사단이 현지에서 앞서 언급한 목적에 필요하다고 확신하면 황실청과 협의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⁴⁰⁾

38) 베조부라조프는 귀족출신으로 근위대 대령으로 제대한 모험주의자로 20세기 러시아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니콜라이 II 세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만주에서 철군을 반대하고 극동에 총독부를 설치하게 하고 비테(С.Ю. Витте) 재무상을 파면케 하기도 하였다. 1893년에 상서(尙書)의 칭호를 받았으나 대일 강경책으로 전쟁을 유발시켰다. 파리에서 사망했다.

39) 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5, лист 50-51.

40) РГВИА, Фонд.846, опись 6, д.1, с.97~98, 216~217.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 Корея(1904-1905гг. МГУ-Москва, 1997г, с.80~81.

이래서 직접 러시아 황실이 개입하게 되었다. 마투닌은 서울주재 대리 공사(1897. 12. 6(발령받았으나 부임은 다음해 3월에 부임하였다)~1898. 12. 31)로 있다가 독일 멜보른(Melborne)주재 영사로 전임되었으나 1899년에 다시 장기간 휴가를 얻어 귀국해 브리네르에게서 20만 루블에 별목이권을 양도받고 대한제국정부와 1901년 4월에 압록강 별목이권도 재계약에 성공하였다.⁴¹⁾

그러나 그 사이에 울릉도의 별목이권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오랜 숙원이던 대륙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별목이권으로 울릉도에 등지를 들고 발을 붙여 러시아 군함의 저탄장(貯炭場) 등으로 사용할 것을 두려워해 처음에는 서울에 사는 일본 민간인 하사마(狹間)를 내세워 울릉도 별목이권의 양도를 요구하다가 러시아 측의 대답이 없자 전통적인 왜구(倭寇)의 습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울릉도에서 25평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일본이 아름답디 원시림(原始林)인 희귀목(稀貴木)을 도벌(盜伐)해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소문에 서울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수차 대한제국정부에 러시아인에게 준 이권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태로 있었다.⁴²⁾

그러므로 러시아 공사관은 이 별목이권을 만주의 방어선 구축에 (주: 여순항 항만공사와 철도건설에 목재가 필요했고 한·만국경에 도로를 개성해 일본의 침략을 대비한 방어선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필요한 국방과 관련된 이권으로 생각하고, 1899년 6월에 경북도청의 산림감리 조성협의를 안내를 받아 공사관 서기 쉬테인(Штейн)을 울릉도에 출장 보내 일본의 도벌실정을 파악하도록 했다. 쉬테인이 울릉도를 답사한 후 러시아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울릉도에는 140명의 일본인

41) 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0, лист.173.180.

42) 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1-7.

도벌(盜伐)꾼이 23명의 일본 여성과 함께 생활하며 도벌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⁴³⁾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로젠(Розен Р.Р.)으로 하여금 일본 외무부에 러시아가 취득한 벌목이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도벌한 목재를 독도를 중간 거점으로 이용해 일본으로 수송해가고 있으니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외상은 말로는, 도벌을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사실상 동해의 전략적 요지인 울릉도의 벌목이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데 대해 양심을 품고 배후에서 도벌을 권장하였던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러시아 서울 공사관에서는 대한제국정부에 항의를 하는 한편 러시아 외무부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함대를 파견해 도벌을 못하게 방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1899년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함대에 지시하여 순양함 까르닐로프 제독(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호를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까르닐로프 제독 호는 울릉도 해안에 도착해 육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해상에 은폐하고 있으면서 넓이가 약 340미터의 좁은 만에 일본 목재수송선이 들어와 목재를 싣고 일본으로 수송해 가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울릉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므로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대한제국정부에 도벌방지책을 세워줄 것만을 강력히 요청하였던 것이다.⁴⁵⁾

마침내 이런 일본 측의 도벌행위는 고종으로 하여금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반포(頒布)하게 한 동기가 되어 울도(鬱島=울릉도), 죽도(竹島=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 석도(石島⁴⁶⁾=독도

43) АВПРИ, Фонд.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4, лист.1-7.

АВПРИ, Фонд.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43, лист.10.

44)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493, Дело 130, Лист.173.180.

45)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Дело. 130, Лист.174.

46) 독도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전라도 지방에서는 돌다리를 독 다리, 장과 된장 담은 그릇은 독이라고 부른다. 즉 독도는 돌섬이라는 뜻으로 전라도 해녀

(獨島)를 포함해 울릉군으로 격상시키고 도벌방지는 물론 방위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⁴⁷⁾

4. 독도 앞 러·일 해전도(海戰圖)

한편 러시아는 러·일전쟁이 육지에서 불리해지자 전세를 만회하고자 발틱함대(Балтфлот)를 위시해 흑해(黑海)함대 등으로 태평양 제2함대와 제3 전투함대를 구성해 여순항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이 러시아 함대의 스웨즈 운하 통과를 방해해 아프리카 남단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게 되어 때를 놓쳤던 것이다.

여순항이 1905년 1월에 일본에 함락 당하자, 태평양 제2함대 사령관 라제스트벤스끼(Рожественский З.П.) 해군중장은 3전투함대까지 통솔하고 항로를 블라디보스토크로 변경하여야 했다. 러시아 함대는 대한해협(大韓海峽)에 1905년 5월 27밤에 진입하였다. 함대는 전함, 철갑순양함, 순양함, 어뢰정을 비롯해 병원선 2척, 수송선 6척도 포함 38척이 있는데 그 중에 는 까레야(Корея=시대별로 조선, 대한제국, 한국으로 번역한다.)라고 호칭한 석탄수송선도 있었다.

오래 전부터 마산(馬山)에 앉아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수시로 보고 받고 있던 일본 도고(東郷) 해군제독에게 러시아 함대가 남해에 출현했다는 타전을 받고 즉시 러시아 함대에 비해 3배가 많은 121척(주: 어선(漁船)까지 무장)을 동원해 대마도 근해에서 대기하도록

들이 그곳에서 작업하면서 석도(石島)라고 부르지 않고 독도라고 부른대서 유래된 지명이나 독자를 한문으로는 석(石)인데 독이라는 음(音)을 내는 글자가 없어 독(獨)자를 쓰면서부터 독도(獨島)가 되었다고 한다.)

47) 대한제국 관보: 1900년 10월 25일자.

하였다.

이 대마도 해전에서 라제스트벤스끼 사령관이 승선한 사령선(司令船) 수보로프 호는 침몰되고 라제스트벤스끼는 구출되었으나 중상을 입어 러시아 함대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19시경에야 라제스트벤스끼는 지휘권을 3함대 사령관 네바가토프(Н.И.Небогатов) 소장(少將)에게 인계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진하라고 지시하였다. 러시아 함대는 5월 27일 낮의 전투에서 기함(旗艦) 수보로프를 비롯한 전함 4척이 침몰되고 다른 군함에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 해전에서 러시아는 전함 8척과 장갑 순양함 1척, 해안 방어용 장갑순양함 1척, 순양함 4척, 보조 순양함 1척, 5척의 어뢰정과 수척의 수송선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5월 28일 독도(獨島) 앞 해상에서 일본 해군에 포위되자 지휘권을 인수받은 3함대 사령관 네바가토프는 겹겹이 일본군함이 포위하고 있어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였다. 뒤따르던 라제스트벤스끼가 승선한 어뢰정도 항복하고 말았다.⁴⁸⁾

이에 대해 혁명가 레닌은 <러시아 함대가 그렇게 무참히 전멸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러시아는 패전뿐만 아니라 전제군주국가의 종말을 맞이하였던 것이다>라고 후에 술회하였다.⁴⁹⁾

그러나 그 중에 순양함 돈스꼬이 호는 항복을 거부하고 독도 앞에서 일본함대의 포위망을 돌파할 때 맞대응을 하다가 집중포화를 받아 선체가 파괴된 상태에서 겨우 울릉도까지 해질 무렵에 당도해 함장과 선원들은 상륙하고 돈스꼬이 호는 새벽에 수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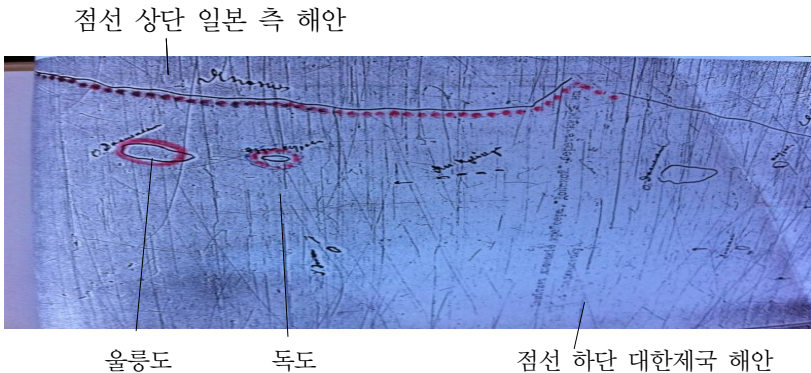
그리고 특히 “돈스꼬이” 호는 1905년 포츠머스 평화조약(강화조약)을

48)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80г. т. 8. с.437~438.

49) В.И. Ленин, Полн. Собр. Соч. т. 10. Москва, 1948г. с.252, Грибовский В.Ю., Познахирев В.П..Знаменитные адмиралы, кн.2, СПб. 1999.с.259.

체결한 이후에 일본의 포로로 있다가 석방되어 제출한 대마도 해전의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해전도까지 첨부하였다.

그 해전도에 울릉도와 리양쿠르(독도)를 점선으로 분류해 대한제국 측 해상에 배치하였다. 도서 명칭은 “리양쿠르”로 표시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러시아 해군에서는 널리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이다. 즉 동해를 대한제국 측 영해, 일본 측 영해 이렇게 점선으로 양분하여 대한제국 측 영해에 독도를 배치시켰던 것이다.



★ 드미트리 돈스꼬이 호의 해전 회상기에 있는 지도⁵⁰⁾

(필자: 붉은 점 안에 울릉도(필자: 붉은 원표시)와 독도(필자: 작은 붉은 원 표시)를 위치시켰다. 그리고 일본 순양함 부대와 돈스꼬이 호라는 글자가 보인다. 붉은 점을 기점으로, 하단과 상단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울릉도, 독도를 위치시켰다. 즉 동해를 양분하여 상단은 일본해안, 하단은 대한제국해안으로 표시한 것이며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함대를 포위한 지역은 대한제국해안 쪽이다(하단).)

50) ГАРФ, Фонд. 601, опись.1, дело. 513.

5. 러·일 평화조약(1905) 체결 이후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의 독도 인식

러·일 포츠머스 평화조약(1905. 9. 5)을 체결한 다음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 다시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약탈한 후부터는 사실상 한·러 외교관계는 1990년 한·소(韓·蘇)가 수교를 체결할 때까지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로 있게 되어 독도에 대한 자료도 제정 러시아 대외정책 문서 보관소, 해군성 문서보관소, 구소련(蘇聯)시대에 발행된 정치지도(政治地圖), 수로지(水路誌) 그리고 해군전집 등에서 찾아 볼 수밖에 없었다.

제정 러시아 시대는 수로지를 해군부에서 발행하였으나 정치지도는 교통성의 주관하에 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독도의 도서명은 최초 올리부차 호가 1854년 발견할 당시부터 19세기 말까지는 독도의 동도(東島)를 “올리부차”, 서도(西島)를 “메네라이”라고 호칭하였으나 해군부 수로국에서 1859년에 발행한 해군전집에서는 독도를 또 영국군함 “호닛(Hornet)” 호가 1855년 발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⁵¹⁾ 그러나 1901년에 해군전집이 아닌 “동해수로지”에는 독도를 “리앙쿠르”라고만 단독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무인도는 최초 발견자의 명칭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 지리학회의 권고에 따랐던 것으로 보여진다.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 호가 앞서 1849년에 발견해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라고 호칭하였으나 러시아 측에 리앙쿠르 호가 조사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다만 러시아 “올리부차” 호가 발견한 다음해인 1855년에는 영국함 “호닛(Hornet)” 호가

51)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ипография Морской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б, 1959 г., с.27.

발견한 자료는 있었다.⁵²⁾

일제강점기에는 소련의 독도에 대한 표기는 혼란스러웠다. 수로지와 정치지도는 독도에 대한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지도는 1900년부터 독도를 리양쿠르라고 표기한 지도가 있는가 하면, 1910~1930년에는 독도를 발견한 연도순에 따라 여러 발견 선박의 명칭을 사용하고 맨 밑에 다께시마(竹島)를 4번째로 기록해 놓았다. 즉 4번째로 일본이 발견했다는 의미이다.

일본도 일본해군(海軍) 수로국(水路局)에서 1886년 수로지의 발행을 시작하면서 독도를 1886~1894년까지 리양쿠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897년이 되어서야 수로지 제4권에서 다께시마(竹島)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였다.⁵³⁾ 이것으로 볼 때 일본도 국제적으로는 리양쿠르 호가 서양지도상에 없는 독도를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이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이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일본의 도서명 다께시마를 맨 끝에 4번째로 발견한 것처럼 기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치지도에서는 발견연도 순서에 따라 독도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1) 리양쿠르
- 2) 올리부차, 메네라이
- 3) 호닛
- 4) 다께시마

앞서 보았듯이 이런 독도의 표기는 러시아에서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다. 맨 처음 1854~1890년까지는 올리부차, 메네라이, 그리고 1901년부터는 리양쿠르로만 호칭하다가 다음에는 리양쿠르,

52) Лочия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восточного океана, части 1 типогр-аф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СМБ, 1901г., с.31.

53) 水路誌, 日本海軍 水路局, 1886, 1894, 1897年, 영남대학교, 독도 자료실.

올리부차, 호닛으로 불렸으나, 1910년 전후부터 발행된 지도에는 명칭 하나를 더 넣어 다께시마를 맨 밑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발행된 소련 정치지도에는 독도를 리앙쿠르 혹은 산호초로만 표기하다가 1962년에 소련해군 수로국에서 발행한 동해수로지(주: 원명 일본해수로지)는 한글의 음을 따 러시아어 표기로 죽도(Чукто)라고 호칭하고 일본어 표기 다께시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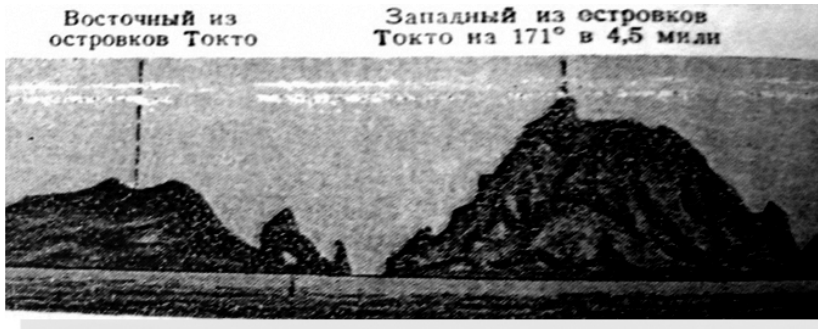
그리고 이 수로지 <제3장 동해안(東海岸)에서 부산까지>라는 제목에서 바로 울릉도 다음에 독도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⁵⁴⁾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에서 동남동 방향으로 48마일 떨어져 있으며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해 있다. 서도(西島)의 고도(高度)는 156m로 두 작은 섬은 바위로 형성되어 식물은 자라지 않고 있으나 동도(東島)의 일부 지역에서 풀이 자란다. 가파른 절벽 밑에 있는 수면 위의 바위에서는 강치가 서식하고 있으며 어둡거나 저녁에는 수심이 깊어 섬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섬에는 담수(淡水)가 있으나 수질(水質)이 좋지 않다. 상주 거주민은 없으나 여름이면 어민이 와서 강치를 포획한다.⁵⁵⁾ 그리고 동도에 등대(燈臺)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1970년에 소련 국방부 수로국에서 발행한 수로지에는 도서명칭을 독도(Токто) 혹은 죽도(Чукто)라고만 표기했으나 독도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전부 한국어 호칭을 따라 독도(Токто)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주 거주민은 없으며 담수는 있으나 수질이 나쁘다고 하였다. 1962년 발행한 수로지와 내용은 같으나 독도의 지명을 죽도(竹島)에서 독도라고 개칭하였다는 것이 다르다.

54) Лочия японского моря, управление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й службы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1962г. с.194.

55) 상계서(上揭書) с.195.



★ 1962년 독도의 동도(東島)로 호칭 ★ 독도의 서도(西島)로 호칭⁵⁶⁾

또 독도를 울릉도 다음 장에 배치하고 독도 다음 장에서는 영일만과 울산만에 대한 기록을 하였다.⁵⁷⁾

그 당시는 소련시대였으나 독도의 실제 지명을 옳게 사용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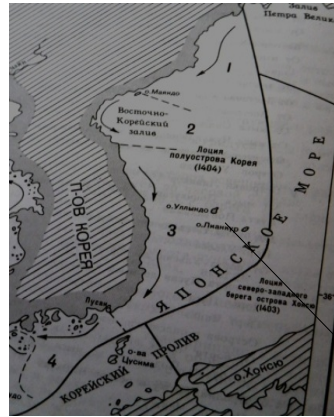
좌측(左側)섬을 러시아어로 독도(Токто)의 동(동도) 우측(右側)은 독도의 서(서도)라고 호칭하여 이때부터 독도의 지명을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탄생한 러시아 연방공화국에서는 2001년에 처음으로 소련시대에 일본해 명칭의 수로지 전통을 깨고 수로지를 한반도(韓半島) 수로지(水路誌)로 개칭해 별책으로 발행하였다.

이 책에서 독도의 지명은 리양쿠르라고 하였으나 이 리양쿠르를 한국영토로 표시한 것이다. 리양쿠르(독도)를 한반도 수로지에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영토로 경계선을 그은 것이다.

56) 상계서, c.178.

57) Лоция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СССР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1970г. c.177~178.



★ 2001년 한반도 수로지의 표지 ★ 이 수로지에서 독도 밖으로 선을 그어 독도를 2001년도 러시아연방 국방부 발행⁵⁸⁾ 한반도 영토에 포함시켰다.

독도의 위치는 역시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고 울릉도 동남동(東南東) 방향 48마일 거리에 있다고 하고 작은 두 섬은 서로 1까벨트(Кабельтов=185.2m) 간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였다.

두 작은 섬 중에 서도(西島)가 더 높아 고도가 157m로 상봉은 멀리서 보면 원통형의 모습이며 수직선의 절벽으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동도(東島)는 서도에 비해 낮은 편이나 상봉은 평평하다고 했다. 해수면의 많은 바위에 강치 무리가 살고 있다. 담수는 있으나 수질이 좋지 못하며 상주 거주자는 없다. 여름에 강치를 포획하려 어민들이 온다.⁵⁹⁾ 그리고 섬에 상륙하는 부두(埠頭)시설이 없다고 쓰여있다.(주: 현재는 설치되어 있다)

비록 이 수로지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울릉도를 거리 측정의 기점으로 삼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보았다는 점이다.

58) Лoция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я,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вигации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Мин. обороны РФ, 2001г. с. переплёт и схема района.

59) Лoция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я,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вигации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Мин. обороны РФ, 2001г. с.218.

6. 맺는 말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의 고문서와 그리고 여러 출판물을 참고해 제정러시아시대부터 소련시대 그리고 현 러시아 연방까지 독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이미 19세기 중엽에 청국 및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파견한 특사 뿌짜틴의 빨라다 호의 호위선 올리부차가 1854년 독도를 발견하면서 러시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러시아는 독도가 서양지도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1857년에 제정러시아 해군부에서 발행한 조선동해안지도 안에 독도를 별도로 제도해 함께 발행하면서 독도는 조선해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조선영토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 조선동해안 지도의 발행에 즈음해 러시아는 극동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항로(航路)를 개척하면서 여러 차례 독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정러시아의 해군전집, 해군수로지, 소련 국방부의 “동해(일본해) 수로지”에서 독도의 위치를 항상 울릉도를 기점으로 측량해 독도를 울릉도에 인접해 있는 도서로 보았다.

그러나 독도의 호칭은 혁명 이후 정치 체제에 따라, 또 서양 여러 발견국가의 발견 순서에 따라 올리부차, 리양쿠르, 죽도, 다게시마, 독도 등 혼란스러웠으나 1972년도에 소련 국방부가 발행한 동해(일본해) 수로지에서는 대한민국과 미수교국으로 적대적인 냉전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를 한글 발음대로 러시아어로 독도(Tok-to)라고 호칭하여 미국의 입장과 차별화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로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그 후 현 러시아 연방정부의 국방부에서는 종래의 “동해 수로지”(일본해 수로지) 대신에 한반도 수로지로 명칭을 바꾸고, 또 정치지도에서는 영토표시를 분명하게 리양쿠르(독도) 밖으로 선을 그어

리앙쿠르를 한국영토 안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사진은 물론 지리자료도 이 한반도 수로지에 수록하였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처음 1854년 발견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한국영토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5.6.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독도와 러시아, 올리부차와 리앙쿠르, 독도와 러시아 군함 올리부차, 빨라다 호의 조선 동해안 지도, 조선 동해안 지도와 독도, 한러 관계사로 본 러시아와 독도

< ABSTRACT >

Russia and Island 'Dokdo' based o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Korea-Russia

Park Chong-hyo

Russia found Island 'Dokdo' in 1854, which was not on the Western map and in 1857, ministry of Navy of Imperial Russia had published a sea map of Korea confirming that Dokdo island is a territory of Korean own Isle near Ulrungdo, one of Korean inhabited island on the south-eastern sea. In publishing Korean sea map, Russian had surveyed 'Dokdo' while developing sea route to Pacific Ocean from Far East and then Russia came to know that Dokdo was is a subsidiary Island of Ulrungdo while they surveyed the island based on the point of Ulrungdo. However, Name of Dokdo has been named as OLibucha, Liancourt, Hornet, Dakkesima, etc by Imperial Russia, USSR and Federation of Russia.

And surprisingly, in 1972, in spite of during Cold War, Defence Department of USSR published sailing directions of East Sea described the Isle named as Dokdo as pronounced as Korean and confirmed Island Dokdo is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differentiating from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then, Defence Department of Federation of Russia has changed name as sailing directions of Korean peninsula from the name of Sea of Japan and have Liancourt(Dokdo) included in Korean territory lining outside of Dokdo Island. Accordingly, since foundation of Dokdo by Russia in 1854, Dokdo has been recognized as Korean own territory.

Key Words : Russia and island Dokdo, Ulrungdo and Dokdo, Dokdo is a territory of Korean own isle, Ulrungdo and Dokdo, East sea and Dokdo, map of Korea in 1857

